

[일반 논문]

## 최인훈의 『광장』에 나타난 분단현실 인식과 의미 연구

A Study on Reality Recognition of Divided Country and Meaning  
in Gwang jang by Choi, In-hoon

김명준

(단국대 강사)

### 차 례

- |                                     |                     |
|-------------------------------------|---------------------|
| 1. 머리말—『광장』의 문제의식                   | 2) 거듭나기와 근대 이성세계 부정 |
| 2. 『광장』의 분단현실에 대한 서사적 인식            | 3) 사랑의 위상과 현실 개안    |
| 1) 강제된 이데올로기적 세계에의 환멸과<br>삶의 도정(道程) | 3. 마무리              |

### 1. 머리말—『광장』의 문제의식

이제, 우리 문학사는 분단문학사를 넘어 민족문학사를 기술해야 하는 당위적 시점에 와 있다. 한국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접근을 ‘분단시대라는 상황성’과 여기에 대응하는 ‘문학정신의 추이’를 놓고 민족문학사적 맥락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해방 이후 한국문학이 걸어 온 과정이 문학의 외적상황에 따라 그 향방이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기실, 민족문학이 ‘민족 전체의 삶에 대한 인식을 문학의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면 민족과 국토의 분단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그 ‘역사적 조건의 극복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터이다.<sup>1)</sup> 즉 민족의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분단문학이 민족문학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분단논리를 극복하고 민족문화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방향

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pp.18~27 참조.

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의 미학적 특질을 해명한 작품론과 작품의 서사인식을 주도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시대정신과 관련한 작가론이 축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족문학사를 새롭게 기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분단문학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최인훈의 『광장』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기념비라라고 평가받는 『광장』<sup>2)</sup>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하고도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sup>3)</sup>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소설적 탁월함과 한계가 동시에 지적되기도 했다.<sup>4)</sup>

최인훈의 『광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분단 이후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한국의 분단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시대정신과 관련 있는 작가의 역사인식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문학사 기술의 한 방향이 작가적 통찰과 무관하지

2) 초판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본 논문의 성격상 판본과 관련이 적은 관계로 판본에 따른 내용변이에 유의하면서 재판본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1976/1989을 중심으로 하였다. 앞으로 인용할 『광장/구운몽』의 텍스트는 『광장』이라 표기하고, 인용은 1989년 판으로 한다.

3) 『광장』에 대한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년 여름호 ; 김현, 『헤겔주의자의 고백』, 『이현구선생 송수 기념논총』, 1970. ; 김병익, 『60년대 문학의 가능성』, 김병익·김주연·김치수·김현,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 김치수, 『한국소설의 과제』, 위의 책 ; 김현, 『한국소설의 가능성』, 위의 책 ; 김현, 『사랑의 재확인—“광장” 개작에 대하여』, 『廣場/九雲夢』 전집1, 문학과지성사, 1976. ; 유종호, 『소설과 정치적 함축—“광장”과 “회색인”의 경우』, 《세계문학》, 1979 가을. ; 정과리, 『개인과 세계의 대립적 인식』, 《문학과 지성》, 1980년 여름. ; 이동하, 『최인훈의 “광장”에 대한 재고찰』, 『현대소설의 정신사적 연구』, 일지사, 1989. ; 한형구, 『최인훈론—분단시대의 소설적 모험』, 《문학사상》, 1989. 4. ; 김중희, 『최인훈 문학의 연구현황』, 《작가세계》, 1990. 봄. ; 한기, 『“광장”의 원형성, 대화적 역사성, 그리고 현재성』, 《작가세계》, 1990. 봄. ; 김영하, 『광장과 밀실의 상실』, 『분단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 조남현, 『최인훈의 “광장”』,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 김병익, 『다시 읽는 “광장”』, 『숨은 진실과 문학』,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인환, 『파국의 의미』, 『비평의 원리』, 나남, 1994. ; 김동환, 『중도적 인물 설정과 소설적 전망 : “광장”론』, 『한국소설의 내적형식』, 태학사, 1996. ; 김옥동, 『“광장”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문학과지성사, 1996. ;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 김현주, 『새롭게 시작하는 “최인훈학(學)”』, 《문학과 사회》, 문학과지성사, 2001 여름. ; 임환보, 『최인훈 “광장”의 서사성과 서사담론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권, 한국언어문화회, 1998. ; 김주연, 『비극소설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서은선, 『최인훈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연숙, 『최인훈 소설연구—“광장”에서 “화두”까지 주체의 욕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4) ‘개인과 자아’에 초점을 맞춰 『광장』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부정적 평가 :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1969년 여름호 ; 정과리, 『자아와 세계의 대립적 인식』, 《문학과 지성》, 1980년 여름호.  
긍정적 평가 : 김병익, 『60년대 문학의 가능성』, 김병익·김주연·김치수·김현,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민음사, 1972. ; 김치수, 『한국소설의 과제』, 위의 책 ; 김현, 『한국소설의 가능성』, 위의 책.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동시대의 사회적 진실을 새롭게 각인하는 시대정신으로써의 창작과 그 반영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다. 『광장』을 예로 하면, ‘분단상황’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을 투시하고 있는 점과 남·북 양 체제에서 내세운 이데올로기가 자체의 순수한 이념으로 승화되지 못했던 척박한 정치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 작가적 통찰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사회 현실,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sup>5)</sup>을 민족문학을 이해하는 거점으로 삼아, 작가 정신의 구조와 작품의 밑바닥에 흐르는 작가의 세계 인식을 토대로 작품의 의미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광장』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는 대체로 ‘개인과 자아’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 왔다. 기질상 주인공 이명준이 갖고 있는 ‘개인과 자아’에 대한 강렬한 의식<sup>6)</sup>이 이 작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공 이명준이 ‘개인과 자아’에 대한 강렬한 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논란의 중심에 놓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개인과 자아는 이미 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자이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와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만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의 분명함은 “〈개인〉이라는 것은 인간개체이므로 동물하고는 달라서 개체 이상의 차원(사회)과 분리해서 개별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sup>7)</sup>는 『광장』에 대한 최인훈의 회고담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개인과 사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최인훈의 인식은 바로 『광장』에 대한 접근태도를 아우르게 하는 발언이다. 『광장』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삶다운 삶을 사는 법’과 ‘개인의 밀실과 광장이 맞닿았던 시절’에 대한 철학도의 관념적 열망에서 이 작품은 출발하고 있다. 즉 개인과 사회를 밀실과 광장으로 환유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는 4·19라는 시대인식과 함께 우리의 분단 현실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풍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불구적 근대’<sup>8)</sup>를 문제 삼은 작품이 『광장』인 것이다.

5) 권영민은 개인과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인간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문제 삼고 있는 소설에 대해 “리얼리티에 대한 신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영민, op.cit., p.26.

6) 김주언, 「황홀경의 유토피아에 대한 비극 의지 : 최인훈」, 『한국비극소설론』, 국학자료원, 2002, p.113.

7)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청하, 1989, pp.35~36.

해방 후, 한국 지배층이 합리성을 가장하여 명분화시킨 이데올로기를 백성을 지배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운명은 자신의 존재조건인 사회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개인과 세계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대한 접근 또한 개인과 자아라는 관점에서보다는 개인과 사회 혹은 시대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의미의 핵심에 다가설 수 있다. ‘풍문에 만족하지 않고 늘 현장에 있으려고 한’ 이명준의 태도는 시대의 관찰자이면서 동시대의 사회적 진실과 가장 상동성 있는 인물이자 문제적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분단소설의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광장』에 투영된 이데올로기의 속성 및 공간의 상징적 의미와 분단현실에 대한 소설적 인식을 살펴 민족문화사를 기술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우리의 분단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숨은 신’<sup>9)</sup>이라고 명명하고, 작가는 분단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의미화 하였는지 그 대응방식에 초점을 맞춰 분단현실의 서사적 인식을 적시하고자 한다.

## 2. 『광장』의 분단현실에 대한 서사적 인식

### 1) 강제된 이데올로기적 세계에의 환멸과 삶의 도정(道程)

인간의 삶은 정치적이다. 인간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과 선택 또한 근본적으

9) 파스칼이 처음 사용했던 이 용어는 골드만이 『광세』를 분석하면서 더욱 의미 있는 용어가 되었다. 그는 “진정한 당신은 숨은 신”이라고 한 파스칼의 ‘단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은 언제나 부재하면 현존한다. 그것이 비극적 세계관의 중심사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여기서 ‘숨은 신’은 ‘비극적 세계관’을 규정 짓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유의 근저에는 신이 사라져 버린 오늘날 ‘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루카치의 사고가 깊게 투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신은 대부분 사람에게 숨겨져 있다. 그러나 신의 은총을 배운 몇몇 선택된 사람만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숨은 신은 ‘언제나 현존하며 동시에 부재한 신’인 것이다(루시앙 골드만, 『숨은 神(재판)을 참고할 것』). 이 연구에서는 골드만의 용어인 ‘숨은 신’을 변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권력에 봉사하고 자신의 신성성이 위협받으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은폐와 합리화를 통해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숨은 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8) 김명준, 『한국 분단소설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1, p.36.

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인훈의 『광장』도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동은 정치적’<sup>10)</sup>이라는 명제와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는 현실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이데올로기이다.

올리비에 르볼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은폐와 합리화를 통해 권력을 정당화하고 권력에 봉사한다. 그리고 힘을 권리로 복종을 의무로 바꾸며, 권력에 해를 가하는 모든 것을 신성모독으로 규정한다. 또한 권력에 대한 복종을 희생으로, 그 희생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화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은폐를 통해 그 신성함을 유지한다. 따라서 권력이 신성한 것의 기반 위에 존재하고 그 위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면 폭력이 된다.<sup>11)</sup> 테리 이글턴도 이데올로기는 폭력을 우회적인 위협, 암묵적인 최후 수단의 상태로 유보하고 축소시켜 놓으며, 권력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도 이데올로기는 언어에 의해 그 폭력을 정당화 시켜준다고 주장한다.<sup>12)</sup>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속성은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의 삶 전반을 규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가 자신과 관계하는 이데올로기적 사회에 대해 점점 환멸하고 인간 대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관망자의 시선’<sup>13)</sup>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가 이데올로기적 세계에 대해 환멸을 품게 되는 도정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개입되어 있다.

첫 번째는 ‘S서 형사실의 폭행사건’이다. ‘누리와 삶’에 관심을 갖고 ‘영웅’이 되어 ‘보람된 삶’을 살고자 했던 이명준은 풍문만 떠도는 남한의 현실에서 그 어느 분야에서도 일할 수 있는 광장다운 광장을 찾지 못한다. 탐욕과 배신과 살인이 횡행하는 ‘정치의 광장’, 사기와 협박이 난무하는 ‘경제의 광장’, 무정견과

10) 유종호, 「소설과 정치적 함축」, 《세계의 문학》, 1979년 가을호, pp.64~66 참조.

11) 올리비에 르볼, 홍재성·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pp.27~33 참조.

12) 테리 이글턴, 김현수 역, 『문학이론 입문』, 인간사랑, 2001(개정판), p.40.

13) 유종호는 ‘구경꾼’으로서의 이명준(앞의 논문, pp.67~70 참조)을, 김동환도 ‘중도적 인물’로서의 이명준을 설정하고 대상에 대해 취하는 그의 ‘관망자적 자세’(『‘중도적 인물’ 설정과 소설적 전망:〈광장〉론』, 『한국소설의 내적 형식』, 태학사, 1996, pp.221~225 참조)를 제시한 바 있다. 오성근도 최인훈 작품의 인물들을 ‘장타입’의 인물(김병익·김현 역음, 『민음의 세계와 창』의 문학), 『최인훈』, 도서출판 은애, 1979)로 분석한 바 있고, 정과리도 여기에 동의한다.(『자아와 세계의 대립적 인식』, 《문학과 지성》, 1980년 여름호, p.468.)

사디즘과 박래품이 판을 치는 ‘문화의 광장’ 등 그 어느 것도 이명준이 일할 현실적인 터전이 되지 못할 만큼 타락했다. 그래서 그는 고독과 무력감에 빠져 자신만의 방, 곧 밀실로 들어간다. 그러나 월북했던 부친의 대남 비방방송으로 ‘S서’ 형사실에 끌려가 심한 고문과 구타를 당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이데올로기적 현실에 눈을 뜬다. 이때 “한 마리 씨벌레의 생산자”<sup>14)</sup>로만 이해되었던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힘이 판치는 타락한 남한 사회에 분노한다. 특히 일제 때 한국인을 체포하여 고문했던 사람이 다시 형사가 되어 자신을 고문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죄의식 없이 오히려 고문했던 사실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남한의 정치적 현실에 대해 더욱 환멸 한다.

두 번째는 노동신문사에서의 ‘자아비판사건’이다. 남한체제에 환멸했던 이명준이 새로운 광장을 꿈꾸며 월북하여 본 북한은 ‘개인적인 욕망이 터부로 되어 있’고 ‘사람은 없고 장승만 있는’ 환상의 세계에 불과했다. 그곳은 ‘판에 박은 말과 앞뒤가 있을 뿐’, 영웅으로 생각하였던 아버지와 혁명가의 아내이어야 할 새 어머니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sup>15)</sup> 이러한 북한의 실체를 더욱 각인하게 된 계기가 ‘자아비판 사건’이다. 그가 노동신문 기자로서 남만주 소재 ‘조선인 꼴호즈’의 실태를 취재하여 어려운 조선인 후예들의 실상을 생생하게 기사화했을 때, 당원들로부터 “인민의 적개심과 근로의 의욕을 양양시키고 고무”<sup>16)</sup>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자아비판을 강요받는다. 이때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광장과 전혀 다른 현실을 깨닫고 광장의 ‘집단적·당파적·폭력적 속성’<sup>17)</sup>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세 번째로 타고로호 선상에서 겪은 ‘석방자들과의 충돌사건’이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기 위해 선택한 중립국행에서, 이명준은 ‘무리’의 힘을 빌려 ‘개인’ (‘날’)의 쾌락을 추구하려는 강제된 석방자들의 행위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폭력적 속성과 ‘꼴호즈 기사’ 때문에 자아비판을 강요했던 불신과 대립의 눈초리를

14) 『광장』, p.69.

15) 『광장』, p.123.

16) 『광장』, p.126.

17) 김명준, 앞의 논문, pp.18~27 참조.

보게 된다. 이때 ‘무리’의 힘에 대한 환멸한 이명준은 중립국행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된다. 환멸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택한 중립국도 결국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공간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 판을 치고 부정과 타락한 사회현실과 집단적이고 당파적이며 폭력적인 경직된 사회현실로부터의 탈출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광장』이다. 즉, 최인훈은 이상적 사회를 꿈꿔왔던 이명준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세계에 대한 부정과 환멸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2) 거듭나기와 근대 이성세계 부정

최인훈의 『광장』에서 이명준이 변태식과 변영미를 통해 ‘거듭나기’를 꿈꾸고, 북에서 만난 은혜라는 여성에게서 ‘원시의 광장’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것은 조악한 현실에서 ‘이명준이 어떻게 살아 갈 수 있는가?’에 대해 최인훈 나름의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논리의 실천과정으로 내세운 것이 ‘S서’와 ‘동굴’이란 두 개의 상징적 공간이다.

우선, ‘S서’는 이명준이 거듭나는 상징적 장소이다. 북한 체제에 대해 회의를 느끼던 이명준이 마지막 사랑으로 여겼던 은혜마저 등지고 사라지자 심한 충격과 함께 모든 세계를 증오한다. 그리고 이 증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상실감을 메우기 위한 일종의 보상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고통의 몸부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신생을 위한 몸부림은 악마성으로 표출된다. 그 첫 번째 장소가 ‘S서’다. 그가 남한의 폭압적 현실에 처음 눈을 뗀던 이곳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S서’는 ‘제의적 장소’<sup>18)</sup>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문화사적으로 이와 같은 재생을 위한 행위에는 ‘물리적 폭력’<sup>19)</sup>이 수

18)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희생제사의 목적은 공동체 전체를 그 내부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조화를 복구하려는데 있다. 즉,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충동에 의해 계속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폭력에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희생제이다. 루시앙 골드만, 송형기·정과리 역, 『숨은 신』, 연구사, 1990, p.49.

반된다. 'S' 지하실에서 이명준은 간첩활동을 한 변태식과 재회하게 된다. 속물로만 알았던 태식은 이미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강윤애의 남편이 되어 있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주동적인 인물로 변해 있자 자의식이 강한 그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사랑의 상실감에 대한 증오심과 변신에 대한 당황함이 그로 하여금 폭력을 감행하게 한다.

“난 악마가 돼 봐야겠어. …(중략)… 나는 이번 싸움을 겪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아니 비로소 나고 싶단 말이야. 이런 전쟁을 겪고도 말끔한 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내 손을 피로 물들이겠어. 내 심장을 미움으로 가득 채워 가지고 돌아가야겠어. 내 눈과 귀에, 원망에 찬 얼굴들과 아우성치는 괴로움을 담아가져야겠어. 여태껏 나는 아무것도 믿지 못했어. 남조선에서 그랬구, 북조선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 거기서 나는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 나는 그녀를 믿었지. 그러나 그녀도 나를 속였어. …… 지금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 무엇인가 잡아야지.”<sup>20)</sup>

부풀어 오른 증오심으로 변태식을 고문하고 강윤애를 능욕하는 이명준의 행위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인훈은 “유리들 사이에 두고 물건을 만지려고 할 때처럼, 밀창 없는 안타까운 허망”<sup>21)</sup>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양 체제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열린 광장과 따스한 밀실의 부재에 대한 자학적인 항거”<sup>22)</sup>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히 “부정적이고 파괴지향적인 세계에로의 몰입”<sup>23)</sup>은 역설적으로

19)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물리적 폭력은 일반적으로 '육체적·정신적·영적침해 등 인간성 전체에 대한 침해'를 가리킨다. 지라르에 의하면 인간 사회가 유사 이래 줄곧 모방 본능에 의한 폭력 충동에 위협받아 왔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여기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본능적이며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라르는 이러한 폭력을 본질적 폭력, 초석적 폭력이라고 명명했고, 지속적이고 순환적이라는 면에서 상호적 폭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류성민, 『성스러움과 폭력』, 살림, 2003, p.92 주 1), 24)번 참조. 희생제와 폭력에 관한 책으로는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 김현, 『르네 지라르 폭력의 구조』, 나남, 1987. ; 김진식, 『르네 지라르: 모방욕망과 소설이론』, 계간 《라벨류》, 1998년 여름호. ; 박정호, 『르네 지라르: 문화에 숨겨진 폭력』, 위의 책 등이 있다.

20) 『광장』, p.147.

21) 『광장』, p.156.

22)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p.107.



순수한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자 하는 새로운 탄생을 위한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변태식과 강윤애는 한 마리 ‘속죄양’과 같다.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저마다 정체성을 잃고, 차이를 잃어버리는 위기의 절정에서 그것을 막는 희생물이 선택되는 데 그것이 속죄양이다.<sup>24)</sup> 그렇다면 이명준이 속죄양에 가하는 폭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을 제물에 대한 폭력으로 대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할 폭력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 그 폭력은 성스러운 것이 되고 거듭날 수 있다.<sup>25)</sup> 즉 변태식과 강윤애라는 희생양을 통해 이명준의 광기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준의 폭력적 광기는 환상과 실제에 대한 동일시의 기대가 깨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sup>26)</sup> 동일성은 신성성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동일화라는 신성성을 깨뜨리면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동반된다.<sup>27)</sup> 믿었던 은혜의 배반과 전쟁으로 인한 피폐한 심신 속에서 이명준은 자신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광기를 동반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그 자신이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닮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인간을 광기로 치닫게 하는가?’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폭압적 정치체제와 지배 이데올로기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을 토대로 상황 속 존재로서의 인간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낸 최인훈의 문학적 형상은 곧 동시대의 현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마치 그의 또 다른 작품 『회색인』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 시대는 ‘어떤 출구도 찾

23) 박신현, 「한국전쟁 전후기 소설의 이데올로기 인식양상 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제25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p.481.

24) 김현, “초석적 폭력과 성(聖)”,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김현문학전집』 10, 문학과지성사, 1993, p.48.

25) 류성민, 앞의 책, p.87 참고.

26) 타자를 동일화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속성이다. 프랑스 철학자 뱅상 데공브는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한 서구 형이상학의 전제들이 더욱 공고히 지속시켜 온 점을 ‘동일성의 논리’에서 찾는다. 동일성의 논리란 타자를 동일자에 환원시키고 그림으로써 차이를 동일성에 종속시키지 않는 타자를 스스로 제시할 수 없다는 사고의 형태를 의미한다. 그 종속의 방법이 코기토적 사유의 양태이건 지각의 양태이건 간에 이는 타자를 동일자의 언어로 옮기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동일성의 논리는 이 질적인 것을 동화시키고 무분별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비합리적인 것을 확장된 이성 내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동일성의 논리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본다.

뱅상 데공브,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0, p.136 참고.

27) 김명준, 『한국의 분단소설』, 청운, 2003, p.71. 이하 본 논문은 줄지에서 『광장』에 대한 일반적 진술 일부를 발췌·요약·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분석과 해석, 평가에는 차이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을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상황'<sup>28)</sup>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원환적이고 자연적 세계를 표상하고 있는 '동굴'은 최인훈이 이데올로기적 정치현실을 비판하면서 자유롭게 인간의 꿈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현현시켜 보고자 한 상징적 공간이다. 즉, 인간의 보편적 사랑의 실현 가능성을 응축시켜 보여준 당위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이명준은 이성세계와 거리를 두면서 이데올로기의 폭력적 세계를 관망자처럼 바라보고, 환상과 실제와의 차이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유한다.

이 굴에서 풍경을 보기 비롯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풍경은 다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왼쪽으로도 막히고, 오른쪽으로도 막히고, 아래위로 가려진 엉성한 구멍을 통하여, 명준은 판 세계를 내다보고 있었다. **굴속**, 손바닥만한 자리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서, 전차와 대포와 사단과 공화국이 피를 흘리고 있는 저 **바깥세상**을 구경꾼처럼 보고 앉은 자기의 몸가짐을 나무라기에는, 이명준은 너무나 지쳐 있었다. 훈훈한 땅김이 자기 체온처럼 느껴지는 동굴 속에서, **이명준은 땅굴 파고 살던 사람들의 자유를 부러워했다**.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엎드려 암수의 냄새를 더듬던 때를 그리워했다. 이렇게 내다보는 풍경은 아름다웠다. 원시인의 눈에는, 모든 게 아름다웠을 게다. 저 푸른 햇빛들의 잔치. 이 친근한 땅의 열기. 왜 우리는 자유스럽게 이 풍경을 아름답다고 보지 못하는가.<sup>29)</sup> (강조-필자)

여기서 자연적 세계의 속성을 표상하는 '굴속'과 근대의 이성적 세계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바깥세상'은 이성세계를 강하게 부정하는 최인훈의 세계인식에 대한 표지라 할 수 있다. '땅굴 파고 살던 사람들의 자유를 부러워했다.'는 이명준의 진술에서 이 같은 사실은 방증된다.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유롭게 볼 수 없는 현실. 온갖 전쟁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물질 위주의 근대는 인간에게 안위와 평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개개인의 제반 삶을 구속하는 감옥과 같다. 이명준이 전쟁을 '바보짓'이라 규정하고 '전차와 대포를

28) 권보드레,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민족문화사 연구》 제10호, 민족문화사학회, 1997, p.229.

29) 『광장』, p.160.

지키라'고 한 전쟁터에서 '원시의 광장을 찾아 가'는 것으로 폭압적인 권력체제에 항명하는 행위도 이성 세계에 대한 부정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 자유롭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보편적인 사랑법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물적 토대, 즉, 광장과 밀실이 맞닿린 세계가 현실에는 존재해 있지 않다. 이처럼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인민을 볼모로 삼아 행하는 전쟁의 메커니즘에 대한 통박을 통해 최인훈은 이데올로기와 정치권력에 대해 강한 부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명의 이기가 도래하지 않고 광장과 밀실이 맞닿아 있는 곳이 동굴이다. 이곳에서 은혜와 사랑이 이뤄지고 새 생명이 수태된다. 마치 단군신화의 신화적 공간을 연상케 하는 이곳은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결합의 장소요, 죽음이 아니라 탄생의 공간이다. 그러나 동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사회와의 합일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사회, 즉 이데올로기의 폭압적 정치 현실에서 패배하여 도피하듯 하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굴은 현실성을 담보 받지 못한 낭만적이지만 일종의 비극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다.

### 3) 사랑의 위상과 현실 개안

최인훈은 이명준의 주변 여성들의 역할을 통해 폭압적 현실의 위상을 드러낸다. 이들은 이명준의 삶에 실제성을 부여해준다. 그렇지만 이들을 향한 이명준의 사랑이 어떤 구체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들 여성이 현실체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형성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랑법을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명준의 비판적 논리에 상응하는 행위로 맞세워 본다면 작의를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이들의 사랑에 대한 형상은 부족하다. 이들의 사랑은 이명준의 삶의 여정을 파악하는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과 실제와의 거리를 추측하는 의미 이상을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의 사랑법은 정치적 상황으로부터의 좌절과 이로 인한 환멸의 세계를 환유적으로 대체시키는데 공헌한다.

'S서' 사건 이후,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의 폭력적 속성을 깨닫고 남한 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 불신하게 되었을 때 이명준이 도피하듯 만난 인물이 강운

애다. 그러나 ‘체면의식’이 강한 그녀는 어느 한 곳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터부의 벽’을 느끼게 한다. 외부 현실은 이데올로기라는 숨은 신에 의해 인간의 의식을 감금시키고 폭력이 그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이명준이 윤애에게서 찾으려는 개인의 밀실은 오히려 사회적 자아가 너무 강한 그녀의 체면의식에 의해 안주할 수 있는 여유와 평안을 주지 않는다. ‘온 몸으로 믿어달라’는 이명준의 간청에도 그녀는 거리를 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은 소통이 부재한 불구의 사랑이 된다.

또 한 사람, 북한 현실에 환멸을 느꼈을 때 이명준이 만난 인물이 은혜다. 그녀는 윤애와 달리 감성적이고 원초적인 인물이다. 광장다운 광장을 찾던 이명준에게는 항상 순종하는 그녀가 살가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은혜의 몸을 안았던 두 팔 넓이의 광장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이 점은 현실에서 보상받지 못한 욕망을 사랑의 문제로 투사시킨 그의 에고이즘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이상을 펼 수 없는 외부현실에서 좌절한 이명준이 도달한 진리가 “은혜의 몸뚱어리뿐”<sup>30)</sup>이라는 자각은 “모든 우상은 보이지 않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의 약함 때문에 태어난 것”이라는 유물론적 세계로 그를 이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과적으로 “손에 닿고 만져지는 참에만 진리는 미더웠다”<sup>31)</sup>고 말할 만큼 외적 세계의 우위가 한 개인을 자기애로 몰아가게 한 것이다.

이러한 두 여성의 역할은 이명준의 중립국행에서도 잘 드러난다. 양 체제를 통하여 이명준은 ‘무리의 힘’이 현실의 광장을 쫓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 있다. 석방자들이 ‘무리의 힘’을 쫓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중립국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때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이명준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갈매기’가 자신의 연인과 딸로 일체화되는 순간 그의 중립국행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푸른 바다를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는 여건이 폭압적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자살도 여기에 개연성이 있다. 그의 죽음은 한편으로

---

30) 『광장』, p.13.

31) 『광장』, p.130.

새로운 이상세계를 찾은 것이자 환멸의 세계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세계도 현실과 마찬가지로 다름 바 없다는 척박한 현실세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환유적 표지일 뿐이다.

한편, 양 체제를 넘나드는 이명준의 여정은 삶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한국전쟁과 10여 년 시간적 거리를 갖고 있던 1960년대가 만들어진 최인훈의 지적 사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준의 의식의 분열을 잘 보여준 다음 인용은 동시대를 바라보는 최인훈의 세계인식을 보다 곤고하게 해준다.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셈할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중략)…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피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낚시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결음으로 움직인다.

…(중략)…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중략)…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 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보지 못한 섬에 당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sup>32)</sup> (강조-필자)

진지한 자기반성과 도피의식이 교차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말’과 ‘권력’과

32) 『광장』, pp.173~174.

‘신비한 술잔’ 모두 합리성을 가장한 은폐적 속성과 권력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말’은 이데올로기를, ‘권력’은 폭압적인 힘을, ‘신비한 술잔’은 환상을 의미한다. 이 진술을 통해 이명준 자신이 이상과 현실을 가늠하지 못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치 이데올로그들이 이미 판을 치고 있었던 사실을 자각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정으로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포악한 정치체제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교차되고 있다.<sup>33)</sup>

이와 같이 최인훈의 『광장』은 ‘숨은 신’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면서 폭압적인 역사의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현실 인식이 담겨 있다. 이명준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황 속에 머물러 버린 것은 현실 상황의 규정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sup>34)</sup> 그가 꿈꾸었던 ‘이루어야 할’ 당위의 세계에 대한 집착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실을 부정하고 이루어야 할 당위의 세계만 고집할 때 ‘삶의 힘을 잃고 그것의 귀결은 결국 죽음뿐’이고, ‘새 삶의 길’로 생각하여 선택했던 중립국도 실상 또 하나의 ‘환상의 섬’에 불과하다는 이명준의 깨달음은 그러나 불구의 자각에 불과하다. 카뮈식으로 말한다면 질곡의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웅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부조리를 사는 삶’<sup>35)</sup>의 방식일 터이다. 만약 그가 ‘이루어 놓은 현실’과 대면하여 그와 맞서 반항하고, 주어진 삶을 자유와 열정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을 것이다<sup>36)</sup>. 그러나 그는 진정한 영웅이 못된다. 그만큼 폭압적 현실의 구조와 이데올로기적 상황이 완고하게 파리를 틀고 있을 만큼 현실은 견고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광장』의 시대인식 근거에는 1960년대를 바라보고 있는 최인훈의 시대인식과 교직되어 있다. 물론 작품 『광장』이 해방 이후 1950년대 인물을 형

33) 김명준, 앞의 책, p.86 참고.

34) 유종호도 이명준의 수동성과 상황의 규정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가만히 두었더라도 소극적인 광망자의 삶을 자아에의 충실 일변도로 자축했을 그를 상황은 내버려두지 않는다. 일차적인 관심이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님에도 그가 궁극적으로 정치적 범주의 사고와 행동으로의 귀속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그의 비극이 있고 작자의 현실인식의 깊이가 있다”고 함으로써 결국 이명준의 성격과 현실인식이 곧 동시대의 진실을 바라보는 작가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그것이 당대의 현실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유종호, 「소설과 정치적 함축—〈광장〉과 〈회색인〉의 경우」, 《세계문학》, 1979 가을, p.70.

35) 알베르 카뮈, 이가림 역, 『시지프의 신화』, 문예출판사, 1996, pp.70~88 참고.

36) 김명준, 앞의 책, p.87.

상하고 있으나 반공 위주의 정책과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혼탁한 사회의 현실, 다시 말하면 헛것의 근대라는 미망과 혼탁한 정치현실로 인한 불확실성이라는 1960년대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4·19로 촉발되었던 시민의식의 성숙과 시대인식의 확장은 결국 1960년대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데올로기적 세계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현실을 부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인식과 현실에 대한 부정이 『광장』의 이명준을 형성한 주원인이다. 결과적으로, 최인훈의 창작모티브는 시대현실에 대한 배반이라 할 수 있다.

### 3. 마무리

이 연구는 민족문학사를 기술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했다. 이를 위해 ‘개인과 사회 현실,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민족문학을 이해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즉 개인과 사회에 관련한 작가의 역사 인식에 초점을 맞춰 『광장』의 분단현실에 대한 서사적 인식과 작품에 투영된 이데올로기 속성 및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은 인간의 삶과 사회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했던 영혼의 순수성을 간직한 주인공이다. 영웅적 삶을 꿈꾸었던 그는 형사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타락한 정치와 윤리·도덕을 상실한 세계에 눈을 뜨고, 야망을 가지고 열린 세계로의 꿈을 펼치려 의욕적인 삶을 살고자 했다. 하지만 ‘풍문’의 범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분단 체제의 질곡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현실과는 다른 곳을 쫓아 결국 바다에 투신하는 인생행로를 걷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의 도정에서 그가 현실에 눈을 떴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그가 양 체제가 지향하는 무차별성의 이데올로기와 권력을 바라보고 그 무위성을 주장한 데 있다. 차별이 없는 ‘동시성의 추구’가 바로 이데올로기와 권력이 취하는 태도이다. 이것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신비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화란 과정을 통해 인간을 획일화하고 인간 모두를 똑같은 쌍둥이로 만들어 버린다.

이와 같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허위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데올로기

와 막강한 폭압적 정치권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최인훈의 『광장』이다. 즉 ‘풍문’을 쫓으면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정치권력자들의 도덕과 윤리의식의 상실이라는 문제의식이 이 작품의 바탕에 깔려 있다. 비록 최인훈의 세계 인식이 근대 서구의 개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외부세계와 사랑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염원을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을 통해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인훈은 외부세계와 인간 사랑의 관계를 광장과 밀실이란 용어로 환유적으로 제시하고, 광장과 밀실이 서로 융극(融蝕)된 세계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불구적 근대’라는 환멸의 세계에 대한 부정과 양 체제의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위선과 폭압성을 노출하기 위한 서사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최인훈이 갖고 있는 남북 양 체제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풍문만 있는 세계에 대한 환멸의식’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그는 마치 서사시적 총체성이 깨져버린 오늘의 세계에서 잃어버린 총체성을 되찾기 위해 고독한 존재인 이명준이라는 문제적 개인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장』 전편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명준의 현실 세계에 대한 환멸에의 도정은 곧 이데올로기의 은폐와 폭력적 속성을 정당화 하는 권력에 대한 배반이라 하겠다.

삶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장과 밀실이 부재했던 이명준의 현실은 기본적으로 분단된 현실과 불구적인 근대에서 결과된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인공 이명준은 사회적 살인이라는 함의를 지닌 자살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이명준의 죽음을 통해 최인훈은 근대가 가져다준 이데올로기의 불합리한 속성과 이와 관련된 분단의 질곡을 말하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준의 죽음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보다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분단 현실을 논구해 나아가야 하리라고 본다.

앞으로 이와 같은 준거의 틀로 분단문학을 연구하고 개별 작품의 미학적 특질을 해명한 작품론과 시대정신과 관련한 작가론이 축적된다면 민족문학사의 기술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최인훈, 『광장/구운몽』 재판본, 문학과지성사, 1976/1989.
- 최인훈, 『통일도상국』, 『유토피아의 꿈』, 『최인훈전집』 11, 문학과지성사, 1987.
- \_\_\_\_\_,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청하, 1989.
- 권보드레,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민족문화사연구》 제10호, 민족문화사학회, 1997.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 김동환, 「중도적 인물 설정과 소설적 전망 : 〈광장〉론」, 『한국소설의 내적 형식』, 태학사, 1996.
- 김명준, 「한국 분단소설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한국의 분단소설』, 청운, 2003.
- 김석근, 「동양사상과 정치학을 생각한다—오랜 무관심과 최근의 유행을 넘어서」,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2000. 10.
- 김영화, 「광장과 밀실의 상실」, 『분단상황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2.
- 김주언, 「황홀경의 유토피아에 대한 비극 의지 : 최인훈」, 『한국비극소설론』, 국학자료원, 2002.
- 김진식, 「르네 지라르: 모방욕망과 소설이론」, 계간 《라뿔름》, 1998년 여름호.
- 김 현, 『르네 지라르 폭력의 구조』, 나남, 1987.
- \_\_\_\_\_, “초석적 폭력과 성(聖)”, 「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 『김현문학전집』 10, 문학과지성사, 1993.
- 류성민, 『성스러움과 폭력』, 살림, 2003.
- 박신현, 「한국전쟁 전후기 소설의 이데올로기 인식양상 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제25집,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 박정호, 「르네 지라르 : 문화에 숨겨진 폭력」, 계간 《라뿔름》, 1998년 여름호.
- 서은선, 「최인훈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오생근, 「믿음의 세계와 창 의 문학」, 김병익·김현 엮음, 『최인훈』, 도서출판 은애, 1979.
-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 유종호, 「소설과 정치적 함축—〈광장〉과 〈회색인〉의 경우」, 《세계문학》, 1979년 가을호.

이연숙, 「최인훈 소설연구—“광장”에서 “화두”까지 주체의 욕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임환모, 「최인훈 “광장”의 서사성과 서사담론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권, 한국언어문학회, 1998.

정과리, 「자아와 세계의 대립적 인식—최인훈전집 완간을 계기로」, 《문학과 사회》, 1980년 여름호.

한영수, 『문학과 현실의 변증법』, 새미, 1997.

Camus, A., 이가림 역, 『시지프의 신화』, 문예출판사, 1996.

Descombes, V., 박성창 역, 『동일자와 타자』, 인간사랑, 1990.

Eagleton, T., 김현수 역, 『문학이론입문』(개정판), 인간사랑, 2001.

Girard, R., 김진식·박무호 공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_\_\_\_\_,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Goldmann, L., 송기형·정과리 역, 『숨은 神』(재판), 연구사, 1990.

Lukacs, G.,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Reboul, O., 홍재성·권오룡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Abstract

## A Study on Reality Recognition of Divided Country and Meaning in Kwang jang by Choi, In-hoon

Kim, Myoung-jun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observe the character of ideology and the symbolic meaning of space in Kwang Jang. In addition, it presents how a writer recognized the reality of divided country and signified such facts with focusing on the writer's reaction.

Yi, Myoung-jun, the protagonist of Kwang Jang got furious and disillusioned at the dark side of ideology through experiencing three cases: 'violence case at S police station', 'self-accusation at Labor Herald' and 'a conflict with released hostage in the process of a neutral power'.

In this novel, 'S police station' is judged as ritual place to resurrection and 'a cave' is symbolized for the space of union and birth. It means that the writer switched external social despairs to internal love affairs.

Yi, Myoung-jun, lived as a watcher between reality and ideal, finally did not overcome the conflict world and fell into the situation because of the rules of reality. His ideal dream revealed just a day-dream that cannot come true in reality. Eventually, he realized a neutral power, which he believed in a slim chance of new life, was merely 'an island in fantasy', and then this seemed to be a natural conclusion of an ideologist.

The writer, Choi, In-hun's descriptive recognition basically leans on individual sense of western modern. He presents external society to come true and internal love to keep relation ship through a character. Furthermore,

the writer symbolizes these two worlds for open square and closed room, and also hope for reconcile both. In order to do this, he has a descriptive strategy to show a conflict such as different ideology and hypocrisy power through figuring out a problematic individual.

주제어 : 분단현실(the reality of divided country), 개인주의(individualism), 이데올로기(ideology), 불구적 근대(deformed modern), 화해(reconciliation), 환멸의식(disillusioned consciousness), 서사적 인식(descriptive recognition), 문제적 개인(a problematic individual)